



## 광주 복합쇼핑몰 놓고 '셈법' 복잡한 롯데

7-8월 어등산 '제3자공모' 참여 여부 관심 집중  
우치공원도 '만지작'...제3부지까지 검토하는 듯

현대와 신세계가 광주 복합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어 가운데 유통 빅3 중 마지막 주자인 롯데쇼핑이 복합쇼핑몰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제3자 공모 참여 또는 '우치공원'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뚜렷한 행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21일 광주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11월 21일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를, 신세계프라퍼티는 12월 28일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3개월 뒤인 올해 3월 29일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외형 이이템과 쇼핑 사업 등 복합쇼핑몰 출점을 검토 중"이라며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현재 롯데의 복합쇼핑몰 유치 후보지는 어등산관광단지외 우치공원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어등산 부지에 추진할 경우 앞서 출시표를 낸 신세계프라퍼티의 전국 최대 규모 복합형 체류공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초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제3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한 어등산의 경우 광산구 빛그린산단 인근에 조성되는 338만㎡(102만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광주 군공항 이전 등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 롯데가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롯데 측이 실사를 진행했던 우치공원 또한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근 상권 침체 문제에서 자유로운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유일한 종합유원시설임에도 1991년 개장 이후 30여년 넘게 큰 투자 없이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시민들의 개발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의 셈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경쟁사인 현대, 신세계와 차별화되기 위해선 롯데월드를 추진해야 하는데 고민이 깊다. 롯데의 테마파크와 쇼핑몰이 결합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부터 건립까지 십수년이 걸릴 정도의 대규모 장기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이미 현대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3곳의 복합쇼핑몰 추진 타당성을 놓고 롯데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유통 빅3가 모두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롯데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어등산이나 우치공원이 아닌 광주지역 내 제3의 부지를 검토

하고 있다는 '설'도 나온다. 마땅한 입지를 찾지 못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 3자 공모가 진행되는 7월께 롯데의 복합쇼핑몰 사업 참여 여부가 운과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광주 복합쇼핑몰 추

진에 대해 그룹 부회장까지 언급한 만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부지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박선강·양시원 기자



'창포물에 머리 감아요' 전통명절인 단오(端午)를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전통문화 세시풍속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키움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윤기가 흐른다고 알려졌다. /김애리 기자

##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갈등 해소될까

道, 목포 전체+남약신도시 부분 통합 방안 제시  
양 지역 운수종사자 찬·반 투표 결과 귀추 주목

전남도청이 남약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가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 '부분 통합안'을 제시, 양 지역 운수종사자 찬·반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21일 "택시 사업구역과 관련, 목포 전체와 무안 옹동지구를 포함한 남약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목포 택시는 남약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

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 택시가 부족한 남약 옹동지구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찬

반투표는 7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직차별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 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 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 택시사업자들은 남약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를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무안 택시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후자인 남약신도시에서 1천여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대인 무안 택시의 영업을 뺀 채 상대적으로 손해는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또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교가 학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고에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고교공부를 본격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습성취도 평가에 초·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Today	
농촌 꿈꾸는 청년 농업인	9면
선인 향기 품은 '호남학 산책'	14면
'뚝이기는 축구' 클린스만호우려	16면

2023 광주매일신문 연중 공익 캠페인

봉사·나눔·배려로 만드는 지역공동체

##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전남은 예부터 정(情)이 넘치는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낙후된 경제 여건과 인구절벽 문제가 지역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헤어졌던 이웃 간의 정을 다시 나눠 국난을 극복할 때입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은 2023년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하고 소개해 온정이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동행 기관·기업·단체 :

-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 사랑의열매
- ▶ (사)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 ▶ (사) 광주광역시공무리봉사회 · ▶ 자평(子平) · ▶ 한수원시니어직능클럽
- ▶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지원단 ·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 ▶ 광주남부지소 여성가족위원회

▶ 남양건설 · ▶ 남양문화재단